

## 送년에 부쳐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 時代에 대비하고 技術立國으로 지향하는 정부 施策에 부응하여 技術革新의 要諦가 되는 工業所有權制度 정착과 發明 환경의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出帆했던 올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工業所有權界의 금년 한해는 세계 각국의 自國産業 보호를 위한 輸出制限과 保護貿易主義 강화로 貿易障壁이 높아진데다 특히 美國의 市場開放壓力까지 집요해 실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本會 發展에 同參해주신 特許廳을 비롯한 관계機關과 會員 企業 그리고 發明人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年末을 맞아 국가산업발전의 原動力이 되는 特許管理體制確立과 發明振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認識하고, 그 促進을 위한 決意를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低成長 時代에 살면서 經濟不況을 打開하기 위해 온갖 心血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尖端技術 개발을 통한 對外競爭力 강화와 이의 獎勵保護를 위한 工業所有權制度의 活用에 置重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資源이 부족하고 對外 輸出 의존도가 높아 先進國의 技術保護 障壁과 開途國의 추격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보다도 尖端技術 개발이 切實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尖端技術 개발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制度的 장치의 活用이 그 어느때보다 要請되며, 이에 工業所有權制度의 確立은 우리나라 企業의 至上課題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本會는 금년에도 事業計劃에 의거하여 會員企業 特許管理 專擔要員의 資質 향상과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켰음은 물론 企業과 一般人에 대한 發明 및 工業所有權 知識 보급에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全國民의 發明意識高揚과 發明品의 企業化 促進을 위해 '89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우수發明 試作品제작 보조·외국出願비용 보조 등 많은 發明支援사업을 推進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國際적으로는 中國 등 공산권 국가들과도 工業所有權 交流의 길이 열리는 등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금후의 國際환경은 예측을 不許하므로 企業人들은 高度化 추세에 있는 尖端技術에 對處해 나갈 수 있는 經營態勢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本會에서는 急變하는 國際動向에 對處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를 거울삼아 工業所有權制度의 企業內 運用을 실천하는데 최대의 努力을 다할 것이며, 특히 尖端技術 開發活用に 도움이 될 수 있는 情報資料의 제공 및 要員의 精銳化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工業所有權 認識 提高를 위한 관계 事業을 적극 展開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해가 바뀌는 時點에서 금년 한해동안 本會 發展에 同參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하시는 事業이 더욱 繁昌하고 家庭에는 幸運이 깃드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9. 12. 20

本會 會長 金 生 基